

법회 안내

“영남포교 중추역할 기대하세요”

실상선원(02)499-4442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5일(음) 오전10시30분
 안도정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봉원사(02)392-3007
 반오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청수사(02)816-1290
 자성원 동합불사 일 오전10시
 수오정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한문교실 매주 월~금 오후4시
 금수선원(051)783-2184

인문법회
 개월 첫째주 금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셋째 금 오전10시30분
 동암사(032)2423-5369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후3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단 매주 금 오후2시
 명법사(0333)655-3215
 거사법회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영선사(042)523-0813

거사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대불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승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칠경사(0591)5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안남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합창단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원로 수산스님 영결식

조계종 원로의원 만오당(晩悟堂) 수산(壽山)스님 영결식이 지난 5일 대구 영결선원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도전스님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성실한 방송국 운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국으로서 면모를 다지고, 불교포교의 극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오는 11월 11일 개국을 앞둔 불교대구방송 초대 지사장에 지난 7일 선임된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의 말이다.
 스님은 “불교대구방송은 타 지역 불교방송과 달리 경북지역

조계종 5개 본산사찰과 태고종, 진각종, 대구주지사암연합회 등이 개국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 대구 경북지역 불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은 힘을 바탕으로 불교대구방송개국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불자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사장 선임과 더불어 지난 9일에 불교방송 서울 중앙국과



법타스님 “서울 중앙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인사교류는 물론이고 불교TV와의 공조체계도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승가교육의 새 틀 마련에 전력”

조계종 승가대학원 초대 원장 무비스님

소임이 맡겨진데 대해 한국불교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승가교육의 새로운 전통을 창출한다는 사명감으로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스님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장점은 취하고 비능률적인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스님은 논문평가는 경전의 현대적·대중적인 해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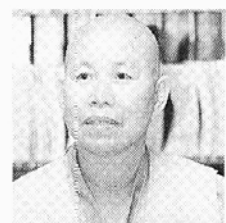
밝혔다. 또한 연구업적물은 언론이나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한터모아 책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비스님은 학인들이 학문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스님의 호를 ‘여천(如天)장학회’도 설립했다. 여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전액 학인들의 의료비와 연구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천=이윤호 기자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성라 실버타운 원장 정덕스님

“효행은 부처님께서 늘상 강조하셨던 중요한 실천덕목입니다. 부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라 실버타운을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실버타운 원장으로 취임하는 정덕스님(자비의전화 회장)은 취임에 앞서 “불교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라원 이사장 법성스님의

권유로 실버타운 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정덕스님은 “법성스님이 그동안 이해해놓은 불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며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덕스님은 ‘자비의 전화’ 2대회장을 맡아 5년여동안 혼신을 다하는 등 불교사회복지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경기도 가평에 자리해 있는 성라 실버타운은 총 96개의



생활방과 각종 문화, 체육, 오락, 진료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겸비하고 있어 최적의 노인복지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0356-85-3323~4)
 이준영 기자

교차로

가장 문학적인 상 수상

법성스님 (사진 위) 이근후 본지 논설위원(이대 신경진상과 교수)등 67명은 지난 6일 리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한국 문인협회(이사장 황명)로부터 종교·체육분야에서 ‘가장 문학적인 상’을 수상했다.
 영남 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장애인가족나들이, 27일 덕유가족가요제를 개최한다.
 삼촌상 봉안 및 점안법회 동봉 우리절 주지는 지난 7일 삼촌상 봉안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들기 공연차 귀국 자은 불은사(하와이) 주지는 오는 11월 16일 춘천 문화예술극장에서의 장애인들기 자선공연 준비차 지난 8일 귀국했다.
 대구 관오사 개원 지도 동화사포교원 불교사회교육원 관오사 주지는 지난 10일

K-TV ‘체험 삶의...’ 출연

삼촌 자비사주지는 오는 21일 KBS1 TV ‘체험 삶의현장’에 출연 호박추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3개종교의 성직자들로 특별 구성된 삶의현장에서 스님은 영천 호박농장의 호박 추수에 도전했다.
 대구 수성구 소재 관오사 개원식을 봉행했다. (053)788-3669

‘수월스님의 생애’ 특강

김진태장사(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12일 조계사불교대학 초청으로 문화교육관에서 ‘수월스님의 생애’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목 ‘시심마’ 시리즈 개인전 김대열 덕원미술관장은 오는 17일까지 청담동 최철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갖고 있다.
 마라톤 TV해설가 데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 불자 황영조씨가 지난 6일 개막된 제7회 강원국제제 마라톤 경기의 TV 해설을 맡아 달리기 실력 못지않은 입담실력을 발휘했다.

대구 관오사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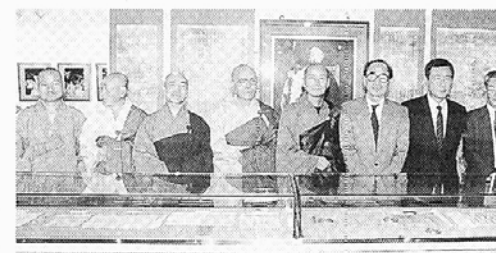
자은 불은사(하와이) 주지는 오는 11월 16일 춘천 문화예술극장에서의 장애인들기 자선공연 준비차 지난 8일 귀국했다.

故 김태중거사 49재 영전에

영전(靈前)에 합장하고 올립니다.
 어느 날 홀연히 허물을 벗고 본래 자리로 가시더니 벌써 49재를 맞이 하였습니다. 우체(愚夫)의 미숙한 머리 속에 아직도 어딘가에 생존해 계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불속 나타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된 계산으로 길고 긴 20여 성상을 탈속의 면모와 후덕한 아량으로 감싸주고 자살인의(慈容慈容) 회한에 어(和氣愛語)하던 형의 그늘이 이제와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제를 비롯하여 주변 동료와 후배들의 인생속에 형의 자리가 너무 크게 자리잡았음이 아닌가 반추하여 봅니다.
 49재를 맞이하여 형을 회고하게되니 뒤늦게 설움이 복받치고 회오가 막급합니다. 함께한 지난 세월이 평탄치 못했을 뿐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았던 불교의 격변기였기에 우교애종(憂教愛宗)의 높은 못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자탄하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호 슬프다 아직도 연부역강(年富力強)할 나이에 아직도 불발홍포를 위해 하실 일이 중첩한데, 무엇이 바쁘기에 그리도 서둘러 가셨습니까? 우치(愚痴)한 후배들은 차치하고라도 연약한 형수님과 미혼의 자녀들까지 놓아 두시고 그렇게·헛사리 밭길에 둘러지던 가요. 형!
 49재를 지내고 가시는 즉시 들쳐서 오십시오 형의 못 다한 대원(大願)을 이루기 위하여 사바세계가 가라고 있습니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會者定離)의 가르침이 있고 형은 우리를 버리고 가셨지만 우리는 누구도 형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정토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거름거름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못 다한 불사를 더욱 큰 힘으로 추진합니다. 한 조각 뜬구름 흩날리듯 허공에 자취를 지웠으면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나듯 자취를 다시 나타내소서.
 불기 2540년 10월 14일 우제 강정기 합장 배례

계시판

보육사=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2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숙직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보육사 3명을 모집한다. (0371)762-3745



효봉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전

조계종 종합재단의 초대종정을 지낸 효봉스님의 열반 30주기 추모전이 지난 9일 법륜사 불암미술관에서 개막됐다.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추모전 개막식에는 보성 원명 설정 현



의정부 사암련, 통일기원 영산재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승)는 지난 5일 시청앞 청소년광장에서 ‘남북통일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의정부 시민속제인 회통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영산대재에는 화룡무가 선보였다. 이날 사암련회장 혜승스님은 대회를 통해 “신도의 슬기와 지혜를 계승하고 영산대재를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문화재수리 기능인 작품전

(사)한국문화재보존수리기능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문화재수리기능인작품전이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개막식 (사진)에는 설정 현 호 혜창스님, 박찬종(신한국당 상임고문) 순주환(전주대사승놀이회장) 정기영(문화재관리국장)씨를 비롯 同협회 전홍수 회장과 회원등 총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성명서

해인총림 산중증진회의 및 수습대책위원회 입장

대저 叢林이라는 경장, 울강, 논장을 一掃하여 불교적 삶의 가치체계를 실현하는 수행공간이며, 또 최후의 일인까지도 더불어 함께 구경각에 이르고자하는 불교의 원력과 禪願이기도 합니다.
 회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총림의 승가공동체인 모습은 역사사화에 있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대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 있어 총림은 역사적으로 태동한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불교집단의 기능으로서 축소되어져서 총림으로써의 제 위상과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해인총림은 성철스님께서 제방의 남자들을 제정할 때 까지만하여도 한국교단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산중공의”에 의한 승가전통을 최후까지 담지하여 왔던 귀의지였으나, 큰스님 열반이후 해인총림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총림운영으로 말미암아 “원웅살림”이 파괴되어지고 급기야 사부대중의 화합마저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림이 총림으로써 제 구실을 상실한 채 한낱 한 중종의 불모로 전락함은 한국불교의 손실이며, 빛나는 승가전통의 몰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림의 대표인 方丈이란 상징성은 修行의 표본으로서 “존중받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아 집니다. 곧 法座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중무행경까지 일일이 관여하여 방장의 권위가 세속화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인총림의 “산중공의”와 “원웅살림”을 대대전승하기 위해서는, 향후 방장스님의 권속문중이 중무행정을 독점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일어난 해인사 사태는 해인사 방장스님인 해암스님을 그 문도들이 올바르게 보살피지 못하고, 큰스님의 위덕을 빌미삼아 문도 몇몇 승려들이 해인총림을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해인사 사부대중을 비롯하여 산내암자 및 말사 주지, 전승련 학인 그리고 선원수와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원웅살림”으로 회복코자 “주지이하 7격의 완전한 퇴진”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무행정을 담당한 스님자들을 배척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묻고 해인사의 승가전통과 “산중공의” 정신을 復活시켜 총림으로써의 제자리에 회귀시키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그간 일사천리로 감행했던 독단적인 인사전환, 선원체제, 강원폐강 등의 어처구니 없는 폐단적인 행정을 繩門의 부끄러움인 것을, 어찌 원웅살림에서 대중에 그것을 묵과하겠습니까.

오늘 해인사의 고통은 해인사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승단에 있어 叢林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엄중한 책적이며 절타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바로 작금에 이르러 성법스님 등 전소임자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한 허위광고 기자회견 등의 갖가지 시비거리에 대한 응대는 한낱, 주도권 싸움으로 대중에게 비쳐질까 우려되며, 그러한 것은 불교내적으로 큰 소모전이고 승단의 위상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 집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성법스님 등 전소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만에 하나 세속법에 의탁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결단코 승가전통으로 단호하게 척결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였습니다.
 중단의 원로 대덕, 그리고 증진 및 사부대중 여러분께 그동안 해인사 문제로 인해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됨을 해인총림대중과 함께 참회드립니다. 모호묵연 내로덕스님 및 사부대중의 협조와 지혜의 책적을 부덕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저희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1. 아직도 잘못을 뉘우쳐 자숙하지 않는 성법, 무척 등에 대해서는 신문출세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을 취함으로써 중단의 징계에 회부할 것이다.
2. 해암 큰스님께서는 더 이상 부덕하고 파행적인 잘못을 저지른 성법, 무척을 비호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3. 성법은 해인사주지로 발령하기 위해 호적정정까지 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주지로 부임된 직후부터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파행적 중무운영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는 바, 총무원은 주지임명직을 즉각 취소하고 징계에 회부하여 해인총림의 위상과 한국불교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26일

해인총림 산중 증진회의
 해인총림산중수습대책위원회

해인사의 내부 사정으로 10월 10일 예정되었던 성법주지 진산식은 취소되었음을 사부대중께 알려드립니다.